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막바지 완성도에 '총력'

'정원에 삽니다' 주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대장정 돌입
도심까지 확장된 193ha…2013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콘텐츠로 무장
현재 종합 공정률 90% 상회…일부 화훼 장식·개막식 무대연출 남아
백운석 운영본부장 "800만 관람객 차질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최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30 프레스데이'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레스데이는 지난달 26일 조직위 노관규 이사장 주재로 추진된 박람회 현장 점검을 기점 삼아, 개막식을 30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행사 준비 태세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박람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레스데이는 백운석 조직위 운영본부장이 직접 박람회장 주요 시설물의 공정 상황과 개막식을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 준비 상황, 입장권 판매 및 관람객 유치 실적 등을 브리핑하고 언론인들의 박람회 관련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채워졌다.

◇ 박람회장 공정률 90% 상회, 3월은 리허설 기간으로 운영하여 완성도 제고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 정원박람회의 종합 공정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화훼 장식과 개막식 무대 연출 등만을 남겨놓고 있다.

주요 콘텐츠별 공정을 보면, 국가정원뱃길을 운행하며 관광객을 실어 나를 '정원드림호'는 제작을 마치고 안전점검에 착수했으며, 60만 평 정원에서 달콤한 하룻밤을 보낼 세계 최초의 '가든스테이' 또한 숙박객 수용 준비를 마치고 3월 10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채광기술이 적용되어 미래 정원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시크릿가든'은 토목 공사 단계를 지나 소방, 인테리어 등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또한 순천의 삼산이수를 표현한 '국가정원식물원'은 지난주 시설 조성을 끝내고 실내정원 조성에 착수하여, 3월 중순이면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 속 박람회장이자 개막식 공간으로 사용될 '그린아일랜드'와 '오천그린광장'도 막바지 공정에 이르렀다. 오천그린광장은 관람객의 밤을 사로잡을 야간경관과 바닥분수, 놀이터 조성을 마치고 곧 시운전에 들어간다. 시민의 푸른 해방구인 그린아일랜드도 무장애길 정비가 끝나는 대로 개막식 준비에 돌입한다.

순천시 도심 전역을 '숲과 꽃에 빠진 도시'로 만들 355ha의 대규모 경관정원도 기반 조성과 종자 파종작업이 끝났다. 3월 중순경 봄꽃 식재를 완료하면, 논아트가 조성될 홍내들 일원을 제외한 3개 구역이 개막에 맞춰 화려한 꽃밭으로 피어날 예정이다.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도심에 조성된 총 12km 길이의 어싱길 조성도 마무리되어 포토존, 의자 설치 등 환경 정비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직위는 3월 10일 내로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리허설로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품격 높은 개막행사 및 다채로운 문화행사 준비·연출로 기대감 고조

주요 참석자로는 10년 전 정원박람회라는 힌트를 준 고정희 박사와, 꿈의 다리를 설계한 강익중 설치미술가 등의 박람회 기여자를 비롯, 생태·ESG 분야 전문가, 코로나 의료진 등 특별초청 인사 1500여 명이 있으며, 해외 인사로는 AIPH회장단과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 30개국 주한 대사 등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사전행사 출연진 섭외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월 중에는 주제공연으로 연출될 대형 미디어 파사드아트 준비와 K-pop 축하공연 라인업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동안 상설 주제공연과 퍼레이드, 거리 퍼포먼스와 이슈형 페스타, 국내·외 유명아티스트 초청공연 등을 연중 진행함으로써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국내 최상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입장권 판매 수익 45억 원 달성, 전방위적 홍보 활동으로 순조로운 관람객 확보

2023년 국내 행사 중 유일하게 국제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800만 관람객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방문 설명회와 팸투어를 포함하여 약 400회에 달하는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입장권 사전 판매 수익은 45억 원을 확보했으며 41만 명이 사전 예매로 방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특히 기부금 수익은 120곳이 넘는 개인 및 단체의 참여로 10억 원을 웃돌아, 당초 목표액의 150%를 달성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17개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방문 설명회를 마쳤으며, 한국여행업협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코레일 등 5개 기관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일부 기관에 대한 초청행사를 준비 중이다.

또,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국외 관람객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 및 유학생, 각종 외국인 기관(주한외국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타깃별 유치 활동을 펼쳐, 현재까지 국외 관람객 유치 목표(32만 명)의 50%에 근접한 15만 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방문 활동 외에도 각종 매체(언론, 방송, 뉴미디어 등)를 활용해 전국적인 이목을 박람회에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한 지난 D-50 프레스데이는 일간지는 물론 외신까지도 보도가 이어졌다. 조직위 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도 전국을 무대로 각종 인터뷰, 방송에 출연하며 박람회 홍보대사로 뛰고 있다.

조직위는 박람회장을 배경으로 한 '런닝맨', '비긴어게인' 등 예능 터줏대감 프로그램 섭외를 완료했으며, 순천 및 박람회 콘셉트와 접점이 있는 여행 분야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도 계획 중이다.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순천시민들의 열기도 뜨겁다.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116명의 SNS서포터즈, 34명의 시민홍보단 '일류플래너' 등이 자발적으로 박람회 홍보 및 소통에 나서고 있다. 조직위와 순천시는 이러한 시민의 응원에 화답하고, 전 시민이 박람회 특수를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람객 도심 유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 "안전을 0순위로, 조성부터 폐막까지 사고 없이 치러낼 것"

이날 브리핑을 총괄한 백운석 운영본부장은 "굵직한 시설 조성·화훼 연출 작업 등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개막 전까지 시운전 및 리허설 등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800만 관람객을 차질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근 박람회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시설 담당 부서는 물론이고 환경안전부 직원 전체가 중점안전관리대상 시설물 10개소에 상주하면서 두 겹 세 겹으로 현장 안전을 체크하고 있으며, 의료·폭염·보건·방범 대책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성에서 폐막까지 안전을 0순위에 놓고 사고 없는 박람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관규 시장도 최근 현장 점검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박람회의 생명은 흠잡을 데 없는 완성도에 있다"면서, "독일 견학으로 방문한 만하임시는 박람회 개최를 8년 전에 결정하고 6년 동안 준비한 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2년도 안 된다. 촘촘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여가되,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하기 바란다"며 직원들에게 안전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10년 만에 새롭게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열린다. 도심까지 확장된 193ha 규모의 박람회는 2013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콘텐츠로 무장했으며, 전세계인에게 미래 도시의 표준 모델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